

‘살인 진드기’ 공포... 야외활동 비상

충북서 또 의심 환자... 전남도 예방관리 지침 마련

김형기(64)씨는 24일 서울 놀이동산으로 수학여행가는 손자(13)에게 풀밭에서는 절대 놀지 말고 반바지 대신 긴 바지를 입고 갈 것을 신신당부했다.

광주·전남에서 텃밭을 가꾸던 60대 여성이 이른바 ‘살인 진드기’(작은 소참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담양에 마련해놓은 텃밭에 갈 때도 긴 소매 옷과 바지를 챙겨 입는다.

매주 토요일이면 무등산을 비롯,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산을 찾던 김화수(40·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괜한 불안감에 즐기던 등산길이 가뻐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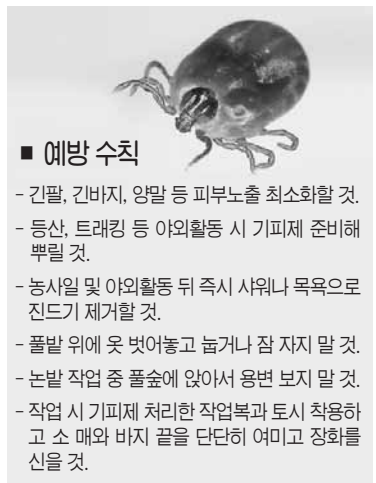
국내에서 처음 감염 사례가 확인된 ‘살인 진드기’,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으며 예방 백신 등 치료제가 없는데다, 여름철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라는 점에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영농철을 맞아 농사일에 바쁜 농촌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격적인 야외 레저가 시작되고, 휴가철이 다가와 행락객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강원도에 거주하던 지난해 8월 사망한 63세 여성 환자가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처음 확인된 이후 충북 충주에서도 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여성 환자가 발생, 보건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국내 첫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 예방 수칙

- 긴팔, 긴바지, 양말 등 피부노출 최소화할 것.
- 등산, 트레킹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 준비해 뿌릴 것.
- 농사일 및 야외활동 뒤 즉시 샤워나 목욕으로 진드기 제거할 것.
- 풀밭 위에 옷 벗어놓고 눕거나 잡지 마는 것.
- 풀밭 위에 옷 벗어놓고 눕거나 잡지 마는 것.
- 논밭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웅변 보지 마는 것.
-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정화를 신을 것.

염 확진 환자가 공식 발표된 이후 유사 의심사례 신고가 전국적으로 쇄도하고 있다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광주·전남 지자체와 각 의료기관, 교육청 등은 살인 진드기 예방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각 보건소와 등산로 등지에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전남도는 또 도내 전 보건기관 및 각 의료기관에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신고 기준과 예방수칙을 통보하는 등 의사 환자 발생 신고와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을 비롯, 초·중·고등학교 등 1381개 학교에 야외 활동 시 SFTS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보내 계획이며 광주시교육청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주민 간흡충 감염 심각

영산강 붕어 등 민물고기 섭취 많은 탓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2만 395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감염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7.56%로 나타났다. 광주는 5.86%로 16개 시도 중 전남은 2위, 광주는 4위였다.

광주·전남에서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장내 기생충의 숙주인 민물고기가 풍부하게 서식하는 영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전국 602개 구역 9000가구를 대상으로 선검체 대변검사와 식생활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 중 2.6%에서 기생충 감염 양성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체 장내 기생충 감염자 수 추정치는 130만 명이다. 이는 제7차 조사 당시의 추정 감염 인원 180만 명보다 약 50만 명 적은 수치다. 장내 기생충 11종 중 간흡충 감염률이 1.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간흡충은 소화불량·복부팽만·간비대·비장종대·황달·야맹증 등 증상을 보인다.

심하면 담도염이나 담도암을 유발하며, 민물고기를 날로 먹을 경우 주로 감염된다.

간흡충 감염은 간암의 원인이 되므로 대변검사와 함께 양성으로 확인되면 즉시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8822) 김종두



광주시 북구청 방역팀이 여름철 질병예방을 위해 22일 오전 두암동 일대를 돌며 연막소독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해외도피 국유지 사기범 7년만에 범정에 선다

82억 편취 60대 구속 기소... 5000만㎡ 불법 취득

희대의 국유지 사기를 저지른 아버지를 통해 불법 취득한 거액으로 캐나다에서 호의호식한 아들이 도피한 지 7년 만에 우리나라 법정에 서게 됐다.

아들의 소재를 파악한 광주지검 특수부는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뒤 3년여간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영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60·전직 검찰 수사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71년부터 85년까지 아버지(85)가 국제형 국유지 매각 업무 등을 맡으면서 친인척 명의로 국유지를 불법취득한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82억원을 받아 함께 갱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버지는 국유지 1억1800여만㎡를 사들여 환수보상금 191억원을 갱권 혐의로 지난 2008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그러나 이씨는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대비해 2001년부터 5년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5억원을 캐나다로 빼돌려 2006년 9월 출국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캐나다에서 시가 16억원 상당의 주택에서 거주하

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국유지 관련 민사 소송에서 제출한 ‘소속 위임장’에서 캐나다 현지 주소를 파악, 지난 2008년 2월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착수해 지난달 이씨를 캐나다에서 구금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후배 괴롭힌 중3 6명 적발

광주광산경찰은 22일 학교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담배 심부름 등을 시킨 김모(15·광주 A중 3년)군 등 6명을 강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후배 오모(14)군 등 6명에게 쉬는 시간 또는 방과 후에 담배 심부름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관장 차 몰래 타고간 겁없는 여대생

○최근 취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자신이 일하는 태권도장 승합차를 몰래 타고 간 겁없는 여대생이 경찰서행.

○2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 2년 이모(여·20)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A태권도장 앞길에 주차된 관장 박모(41)씨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래 몰고 갔다 붙잡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A태권도장 사범인 이씨는 복귀 용봉동까지 약 6~7km 가량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승합차를 버리고 달아났는데, 경찰에서 “운전면허를 하려고 차를 몰래 타고 왔다”고 진술.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여수산단 부탄가스 누출... ‘큰일날 뻔’

20여분간 ... 관로 노후화 정비 시급

여수 국가산단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수 산단 내 원료수송 관로 상당수가 오래 전 설치돼 노후화된 점 등을 들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

적어 많다. 22일 낮 12시 20분께 여수시 평여동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N 공장 인근 도로에서 혼합부탄가스인 MIX-C4 가스가 20여 분간 누출됐다. 이날 사고는 공장 직원이 순찰 도

중에 바로 흡입되면서 폭발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 등은 지하에 매입된 배관이 부식되면서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여수산단 도로 인근에 설치된 폭발성이 강한 각종 관로들이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 기업과 감독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피리모녀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신제품 기적공인가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산프리모·대

대산프리모가발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때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현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화됐던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삼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스름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스름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9(09)04-공-4738호